

공적 신학과 그리스도인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양화된 오늘의 사회 속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한국 역사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민주 시민 사회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교육과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적은 어떠한가요?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성적은 C+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성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적 영역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윤실이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변하지 않는 항목,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태도와 배타적 태도 때문이라는 통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조사 결과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시민 사회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미숙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 미숙함이 마침내 무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이기적 존재로 살아가며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져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미숙한 신앙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지 12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함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서둘러 부끄럽고 미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 신학의 근거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창 1:26-28은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창조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노동과 문화의 사명이 왜곡되었지만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새 계명"(요일 1:7-11)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인 고전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스미션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문화와설교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 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간의 사과 -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 변혁의 삶』,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승리』, 『변화는 가능하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 등이 있다.

이처럼 ‘창조명령’과 ‘새 계명’은 공적신학의 핵심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통합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물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작은 예수의 초상화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적 신학의 실천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인 리차드 마우는 “시민 교양”을 언급하며 이를 ‘공적인 예의’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중용을 지키고, 타인을 향해 예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적 신학의 실천은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예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창조명령과 새 계명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나라 전체로, 개인 복지에서 사회복지로, 개인의 의견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성 때문인데, 이 유일성이 장애물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사회는 점점 다양화되고 종교적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적 신학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공적 신앙의 준비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일은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며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7:11-26).

공적 신학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요구합니다. 신앙고백 없이는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고백 없이는 공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고백이 내면 깊이 자리 잡을 때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적 신앙은 참된 경건의 실천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공적 신앙은 이렇게 참된 경건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에 대해 중요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정결한 경건입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셋째, 공적인 삶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 세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열심을 내다가 풀이 죽는 경우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직’, ‘책임의식’, ‘배려심’ 부분에 힘써야 합니다. 정직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듭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견고한 역사의식에 기반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을 때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심의 함양입니다. 온유함과 사랑이 없는 진리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심이 있을 때 배타적이지 않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인격적인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특히 건덕을 위한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잘난 체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다섯째, 자발적 불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과 동일하게 부와 허영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장거리 박사 같은 세상에 경종을 울렸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누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불편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발적 불편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흠어지고, 교회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자 미숙한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례한 신앙이 아니라 부러움을 갖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곳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